제73호(2020. 5. 8.)
KREI 현안분석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 변화

이명기·순병민·우성휘

요 약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이 중요하다는 인식 커져

- 전체 응답자 중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67.6%,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69.5%, 식량안보가 중요해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74.9%였음.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하고 농축산물 안전성에 민감해져

-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20.3%)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중(8.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농축산물 안전성을 '더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이 48.6%로 높게 나타났음.

수입산 농축산물에 비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하고 외식 횟수가 크게 줄어들어

- 코로나19 이후 국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7.1%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14.1%)보다 높았던 반면, 수입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7%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32.1%)보다 낮았음.
- 코로나19 이후 외식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전체의 79.5%로 매우 높았고, 이들은 외식 횟수(석달 평균)가 평균 63.6% 감소했다고 답했음.

코로나19 이후 도시민들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량을 늘린 반면 화훼류 구매량은 줄였다고 응답했고, 코로나19가 진정 혹은 종식되는 경우 연간 농촌관광 횟수를 전년에 비해 늘릴 예정으로 나타나

- 코로나19 이후 친환경 농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1.2%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8.1%)보다 높았던 반면 꽃(절화) 구매량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33.2%로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6.0%)보다 높았음.
- 코로나19가 진정 혹은 종식되는 경우 본인의 연간 농촌관광 횟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한 비중(44.5%)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변한 비중(12.9%)보다 높았음.

01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

1.1.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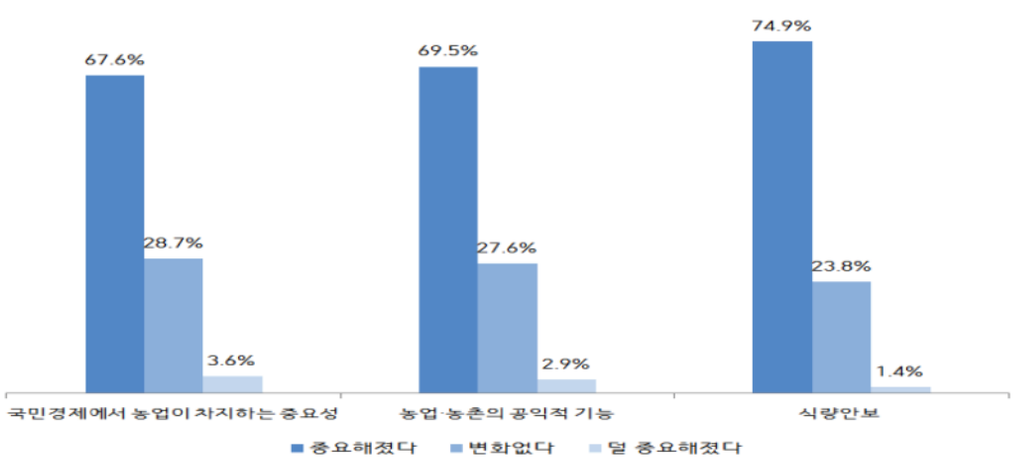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이 중요하다는 인식 커져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해졌다(67.6%)'고 응답한 비중은 '변화없다(28.7%)'는 응답과 '덜 중요해졌다(3.6%)'는 응답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음.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해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음.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1]이 '중요해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자 중 69.5%로 '변화없다(27.6%)'는 응답과 '덜 중요해졌다(2.9%)'는 응답 비중보다 높았음. 한편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중요해졌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식량안보가 '중요해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자 중 74.9%로, '변화없다'는 응답 비중(23.8%)과 '덜 중요해졌다'는 응답 비중(1.4%)에 비해 크게 높았음.

〈그림 1〉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1) 조사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예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경관 보전,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 및 전통문화 보전을 제시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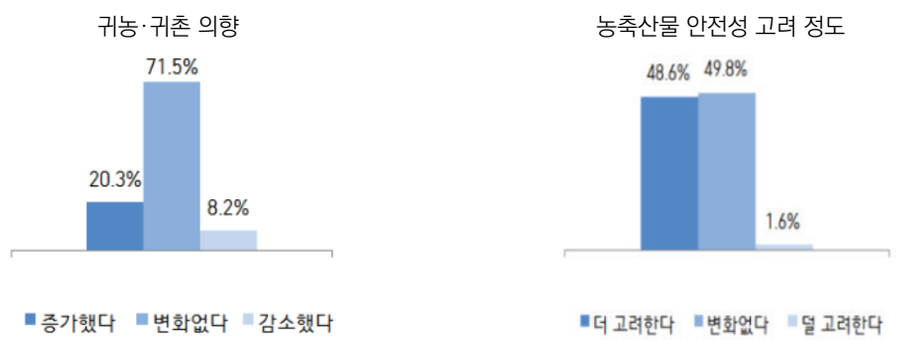
1.2. 귀농·귀촌 의향과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고려 정도 변화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하고 농축산물 안전성에 민감해져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은 20.3%로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됨. 한편 '변화없다'는 71.5%, '감소했다'는 8.2%로 나타났음.

코로나19 이후 농축산물 안전성을 '더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은 48.6%로 도시민의 약 절반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농축산물 안전성에 더욱 민감해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변화없다'는 49.8%, '덜 고려한다'는 1.6%로 나타났음.

〈그림 2〉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의향과 농축산물 안전성 고려 정도 변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1.3. 시사점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도시민들은 농업·농촌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귀농·귀촌 의향 역시 다소 증가했음. 앞으로도 공익적 기능, 식량안보 등 농업·농촌이 지닌 가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창출해 나가야 함. 또한 농축산물 안전성 민감도가 커져 농축산물 안전 관리 중요성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높아졌음.

- 코로나 19를 계기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국토 환경·생태계와 경관 보전, 농촌사회 및 전통문화 보전, 농촌공동체 연대 등과 같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
- 수출 제한 등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 차질, 감염 및 이동제한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식량 위기 경고가 지속됨에 따라 식량안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와 같이, 식량위기 역시 갑자기 발생할 수 있기에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임.
- 농업의 중요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식량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귀농·귀촌 의향은 크게 증가하지 않음. 저밀도인 농촌이 다양한 가치의 삶을 추구하는 데 강점이 있으나, 농촌의 열악한 생활환경, 빈곤한 문화 여건 등은 여전히 귀농·귀촌에 큰 약점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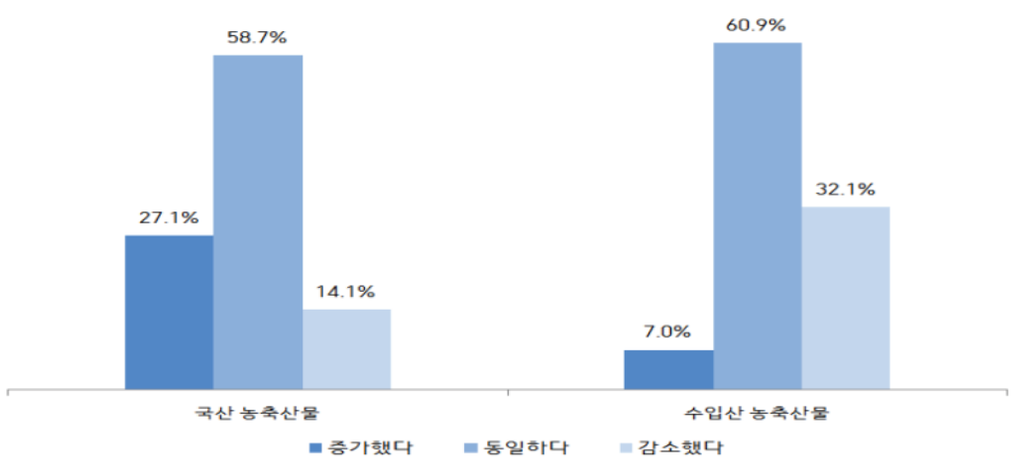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 변화

2.1. 국산 농축산물과 수입산 농축산물의 구매량 변화

코로나19 이후 도시민들은 국산 농축산물 구매량을 늘리고 수입산 농축산물 구매량은 줄여

코로나19 이전 석달간과 비교해 코로나19 이후 석달(2~4월) 동안 국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27.1%)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14.1%)보다 높았음. 반면 수입산 농축산물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32.1%)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7.0%)보다 높았음.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산 농축산물이 수입산 농축산물에 비해 더 많은 선택을 받는 것으로 보임.

〈그림 3〉 코로나19 이후 도시민들의 국산 농축산물과 수입산 농축산물 구매량 변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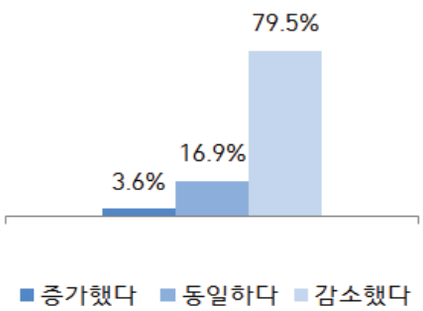
2.2. 외식 횟수 변화

코로나19 이후 도시민들은 외식 횟수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전 석달간과 비교해 코로나19 이후 석달(2~4월) 동안 외식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전체의 79.5%로 '동일하다(16.9%)'와 '증가했다(3.6%)'에 비해 매우 높았음. '감소했다'고 응답한 인원들은 평

균적으로 외식횟수가 63.6% 감소했다고 답변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외식 횟수를 더 많이 줄이는 경향이 있었음.

〈그림 4〉 코로나19 이후 외식 횟수 변화와 가구소득별 평균 외식 횟수 감소 정도



월평균 가구소득	외식 횟수 감소 정도
200만 원 미만	69.3%
200만~300만 원 미만	64.0%
300만~400만 원 미만	64.1%
400만~500만 원 미만	64.1%
500만 원 이상	63.4%
전체	63.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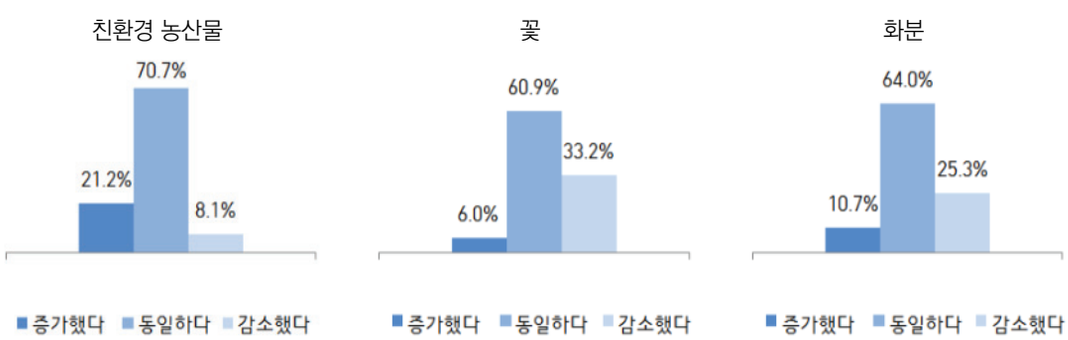
2.3. 친환경농산물과 화훼류 구매량 변화

도시민들은 코로나19 이후 친환경농산물 구매량을 늘린 반면, 화훼류 구매량은 줄인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전 석달간과 비교해 코로나19 이후 석달(2~4월) 동안 친환경 농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21.2%)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8.1%)보다 높았던 반면, 꽃(절화)과 화분 구매량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33.2%와 25.3%로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인 6.0%, 10.7%보다 높았음.

- 친환경 농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감소했다)'고 응답한 인원들은 평균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구매량을 45.2%(41.4%) 늘렸다고(줄였다고) 답했으며, 꽃과 화분 구매량이 '감소했다(증가했다)'고 응답한 인원들은 평균적으로 구매량을 각각 62.8%(51.4%), 65.4%(45.5%) 줄였다고(늘렸다고) 답했음.

〈그림 5〉 코로나19 이후 친환경농산물과 화훼류(꽃, 화분) 구매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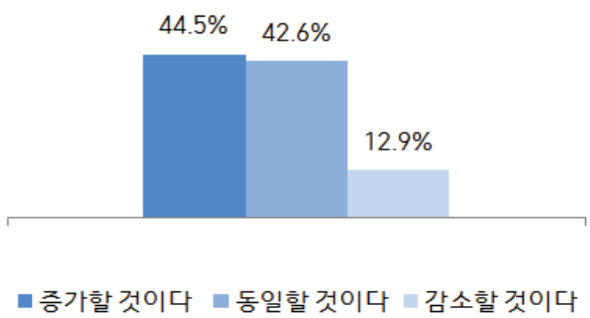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2.4. 농촌관광 횟수 변화(의향)

도시민들은 코로나19가 진정 혹은 종식되는 경우 전년에 비해 연간 농촌관광 횟수를 늘릴 예정이라 답변

코로나19가 진정 혹은 종식되는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본인의 연간 농촌관광 횟수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비중(44.5%)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비중(12.9%)보다 높았음. 연간 농촌관광 횟수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인원들은 평균적으로 농촌관광 횟수를 46.8% 늘릴 예정이라 답했음.

〈그림 6〉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 횟수 변화(의향)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2.5.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도시민들은 국산 농축산물 구매량을 늘리는 반면 수입산 농축산물은 줄이는 소비 행태를 보였음.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국산 농축산물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코로나19로 인해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거리적·심리적으로 가까운 국산 농축산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또한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됨에 따라 한국의 것이 세계에서도 우수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를 더욱 확대할 것임.

코로나19 이후 외식 횟수가 크게 줄어듦에 따라 외식 산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임.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도시민들은 코로나19 이후 친환경농산물 구매량을 늘린 반면 화훼류 구매량은 줄이는 경향을 보였음. 따라서 화훼류 수요 증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코로나19로 인해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화훼류 소비는 졸업식·입학식 취소, 각종 행사의 취소와 연기 등으로 인해 크게 줄어듦. 그러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증가, 집과 집 주변에서 보내는 시간 증가, 일상 주변에서의 가치 추구 등은 향후 화훼류 소비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임.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진정 혹은 종식된 이후에는 농촌 관광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임.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대, 귀농·귀촌 의향 증가, 국산 농축산물 수요 증가 등은 향후 농촌 관광에 긍정적 요인임. 또한 국내 코로나19가 진정 혹은 종식되나 해외에서는 지속될 경우 국내 농촌 관광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부 록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2020년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를 활용해 도시민 1,011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 문항과 구매량 등 수요에 대한 조사 문항으로 구성

〈부표 1〉 조사 대상 및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남녀
조사 지역	전국 도시 지역(행정구역 상 동부)
표본 크기	1,011명
조사 방법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조사(유선 20.8%, 무선 79.2%)
표본 추출 방법	지역/성/연령 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
최대 허용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부표 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11	100.0
지역별	서울	251	24.8
	인천/경기	357	35.3
	부산/경남/울산	137	13.6
	대구/경북	81	8.0
	광주/전라	71	7.0
	대전/충청	84	8.3
	제주/강원	30	3.0
성별	남자	517	51.1
	여자	494	48.9
연령	19~29세	195	19.3
	30대	175	17.3
	40대	219	21.7
	50대	240	23.7
	60대	182	18.0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61	6.0
	고졸	248	24.5
	대재 이상	701	69.3
	무응답	1	.1
직업별	자영업	145	14.3
	블루칼라	118	11.7
	화이트칼라	434	42.9
	주부	149	14.7
	학생	76	7.5
	기타/무직	89	8.8
월평균 가구소득별	200만 원 미만	119	11.8
	200만~300만 원 미만	131	13.0
	300만~400만 원 미만	149	14.7
	400만~500만 원 미만	142	14.0
	500만 원 이상	368	36.4
	무응답	102	10.1

KREI 현안분석

감 수 우병준 선임연구위원 061-820-2378 bjwoo@krei.re.kr
내 용 문 의 이명기 연구위원 061-820-2166 mklee@krei.re.kr
발간물문의 성진석 책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73호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 변화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0. 5.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1147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